대출 규제에 은행권 '진땀'… '非이자 수익'으로 숨통

펀드·보험·신탁 등 금융상품 판매
신탁, 4대은행 효자 수익원 거듭
작년 동기比 675억 증가 '2679억'

가계대출 규제, 금리인상 제한 등으로 수익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권이 비이자 수익 창출에 공을 들이고 있다. 국내은행들이 이자이익 중심의 수익모델에서 신탁상품 확대 등 비이자수익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 지방은행의 경우 올해 들어 이자수익 증가세보다 비이자수익의 증가세가 눈에 띄고 있다.

최근까지 국내 은행권 이익의 80%는 '금리'를 통해서 얻는 이자이익이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선 은행권의 수익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선 비이자이익에 확대에 방점을 둬야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이자이익은 펀드·보험·신탁 등의 금융상품 판매를 통해 얻는 수익을 말한다.

KDB산업은행 윤경수 미래전략개발부 연구원은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은행 산업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향후 국내은행의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위해선 비이자이익 증가로 수익구조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분별 손익(신탁부문)〉 (단위: 백만원)

금융회사명	2017년03월말 당분기	2017년06월말 당분기	2017년09월말 당분기	2017년12월말 당분기	2018년03월말 당분기
국민은행	84,026	60,439	78,340	95,172	109,400
신한은행	38,141	45,431	48,787	52,681	54,806
우리은행	36,488	32,237	41,876	38,368	52,560
하나은행	41,831	38,333	45,900	48,347	51,317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경우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익성 부진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수익구조는 여전히 이자이익(대출자산)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이 올해 1분기에 거둔 비이자이익은 전년보다 28.4%(7000억원) 급감한 1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국내은행의 경우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비이자이익 비중(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 합계액대비)은 9~17%에 불과하다. 이는 신흥국의 비이자이익 비중인 약 27%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신탁, 비이자수익 견인

국내 은행권은 금리상승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가계대출 압박, 금리인상 규제로 대출확대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새로운 먹거리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 가운데 신탁상품이 효자 수익원으로 거듭나고 있다. 국내 4대 시중은행(KB국민은행·우리은행·KEB하나은행·신한은행)의 올해 1분기 신탁수익이 2679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동기 기준 신탁수익 2004억에 비해 675억이 증가했다.

신탁은 고객이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면 금융기관이 돈을 굴려서 수익을 내주는 상품이다.

16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올 1분기 신탁 수익은 1094억원으로, 2017년 1분기 840억원에 비해 수익이 확대됐다. 국민은행은 반려동물 주인이 은행에 자금을 맡기면 본인이 사망할 경우 새로운 주인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KB펫코노미신탁', 조부모가 손주를 위해 가입하는 보급형 상속·증여상품인 'KB금지옥엽신탁' 등을 출시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신탁 부문이 주요 비이자수익원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여 다양한 신탁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은행의 경우 이자수익 증가세보다 '비이자수익' 증가세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행의 올해 1분기 순이자이익 1조646억원으로, 전년(9901억원)보다 7.5% 늘었다. 이중 비이자이익은 올해 1분기 625억원을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560억원)보다 11.6% 더 늘었다. 이자이익 성장보다 비이자이익 성장이 더 컸던 셈이다.

특히 BNK부산은행의 올해 1분기 비이자이익은 215억원으로 전년(197억원)보다 8.9% 증가한 가운데 부산은행의 1분기 이자이익은 3% 증가하는데 그쳤다.

부산은행과 같은 BNK금융지주 계열 은행인 경남은행도 비이자이익은 152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3.1% 급증했다. 부산은행과 마찬가지로 경남은행도 비이자익 증가세가 이자이익(5.3%)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metroseoul.co.kr

우리카드, 페이코 포인트 '체크카드' 출시

우리카드는 16일 NHN페이코와 함께 '페이코(PAYCO) 우리체크카드'를 출시했다.

페이코 우리체크카드는 전월 실적 조건 및 월 적립 횟수에 대한 제한 없이 이용금액의 1.5%를 '페이코 포인트'로 월 최대 1만 점까지 제공한다.

비자 브랜드로 카드를 발급받으면 다양한 프리미엄 서비스도 누릴 수 있다. 국내 부티크 호텔 숙박 및 F&B 최대 40% 할인, 호텔스닷컴 제휴페이지에서 350달러 이상 결제 시 50달러 할인, 진에어 수하물 우선하기 서비스, 국내 26여개 레스토랑 및 펍&라운지 웰컴드링크 및 무료 발렛파킹 서비스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카드 신청도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페이코 모바일앱 설치 후 '제휴계좌·카드'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발급 절차가 완료된 카드는 실물카드를 받지 않고도 PAYCO 앱에서 간편하게 등록하고 이용할 수 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우리카드는 간편결제 주 이용층인 2030세대를 신규 고객으로 확보함으로써 양사 간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인간존중의 경영철학 사회공헌으로 승화"

하나금융그룹, 사회공헌委 발족
위원장에 '박 승' 전 한은 총재

하나금융그룹은 16일 인천 청라 소재 하나금융그룹 통합 데이터센터에서 그룹의 미션인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실천 강화를 위한 사회공헌 자문기구인 '사회공헌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번 새롭게 발족한 하나금융그룹의 사회공헌위원회는 박 승 전 한국은행 총재를 위원장으로 5명의 외부전문가와 김한조 하나금융나눔재단 이사장, 안영근 하나금융지주 사회공헌 담당 임원 등 분야별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됐다.

하나금융그룹의 사회공헌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정기 위원회를 개최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극복,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보육사업을 비롯한 ▲남북교류, 새터민 지원 활동 등 통일시대 준비 ▲청년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 지원 등 사회적 금융 강화 ▲소외계층 지원 등 지역 사회공헌 ▲빈곤 국가지원, 국제구호 등 글로벌 사회공헌 ▲자연사랑 미술대회, 글로벌 환경 기준 준수 등 환경 보전 활동 등 그룹의 중장기 사회 공헌활동 방향 및 추진 사업에 대해 협의하고 자문할 예정이다.

사회공헌위원회 발족 후 하나금융그룹과 근로복지공단간 상생형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식 및 사업주 설명회에 참석한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뒷줄 왼쪽 세번째), 박 승 하나금융그룹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앞줄 왼쪽 세번째),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앞줄 왼쪽에서 두번째)이 행사에 참석한 내외빈과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박 승 위원장은 "하나금융그룹은 보육지원사업을 비롯해 사회공헌사업에 가장 앞장서 실천하는 금융그룹인 점을 감안해 이번 그룹의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직을 흔쾌히 승낙했다"며 "예전에는 기업이라고 하면 이윤을 많이 내고 경쟁에서 이겨 더 크게 성장하는 기업이 환영을 받았지만 지금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더 요구되고, 공동체와 함께 상생하는 기업이 소비자와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는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앞으로 사회공헌위원회는 인간존중, 휴매니티에 기반한 그룹의 철학과 미션을 근간으로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가는데 일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문호 기자 kmh@

(왼쪽부터) 박용진 KB국민은행 법인장, 옥 반다 KB캄보디아은행 부법인장, 박재홍 KB국민은행 글로벌사업본부 전무, 후어 뿌티 KB국민은행 스텅민체이 지점장, 이우환 KB국민은행 글로벌사업부장.

KB국민은행 캄보디아 5·6호점 연이어 오픈

KB국민은행은 지난 11일, 13일에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 현지법인인 'KB캄보디아은행'의 5호점 스텅민체이지점과 6호점 츠바암포지점을 연이어 오픈하고 개점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개점식에는 박재홍 KB국민은행 글로벌사업본부 대표와 이우환 KB국민은행 글로벌 사업부장 등 관계자 100명이 참석했다.

KB캄보디아은행은 지난해에도 3호점인 뚤뜸붕지점과 4호점인 떡뜰라지점을 개설해 현지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두 지점 모두 개점 1년만에 흑자를 냈다.

프놈펜 신시가지 확장지역에 자리잡은 5호점과 6호점도 현지인을 지점장으로 임명했으며, 현지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금대출과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자금대출 등을 중점 취급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지화 영업전략을 통해 디지털뱅킹 기반 금융서비스를 확장하고, 오프라인에서도 현지인 대상 금융편의 제공과 함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NH농협은행 스마트리더 '100명' 선정

NH농협은행은 직원 대상으로 디지털뱅킹을 이끌어 나갈 현장전문가인 2018년 'NH스마트리더' 100명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2014년부터 운영 중인 NH스마트리더는 이(e)금융 제도·서비스에 대한 영업현장 의견 제시, 마케팅 아이디어 제안, 영업점 교육 등 영업 현장과 후선 부서의 소통 채널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이(e)금융 마케팅을 주도하는 현장 디지털 금융전문가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김남열 NH농협은행 스마트금융부장은 "NH스마트리더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디지털뱅킹 서비스를 개선하고, 더 많은 혜택이 고객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우리은행-신용보증기금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맞손'

우리은행은 16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신용보증기금과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혁신성장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을 발굴해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리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120억원을 특별출연해 9000억원의 대출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정부가 선정한 첨단제조, 스마트공장 등 혁신성장 선도산업 영위기업 ▲신성장동력 산업 영위기업 및 상시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등이다.

혁신성장 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 중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은 보증비율 100%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금리를 크게 절감할 수 있고, 최장 11년까지 대출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외 기업에게는 매년 0.4%포인트의 보증료를 2년간 지원한다. 특히 사회적 경제기업은 매년 0.3%포인트의 보증료를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손태승 우리은행장(오른쪽)이 윤대희 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포즈를 취했다.

/안상미 기자